

李대통령, 재계 총수 회동… “규제들 과감히 정리하겠다”

취임 후 첫 5대 그룹 총수·경제6단체장 간담회

이재용·최태원 “바쁜 와중 재계와 소통 감사”

李대통령 “기업 자기 사업 잘할 수 있도록 협조”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대통령 자서전을 읽어봤습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하하하”(이재명 대통령)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 간담회는 화기에 애환 분위기가 속에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려 당초 1시간 정도 예상됐던 간담회는 점심으로 도시락을 먹으며 2시간을 훌쩍 넘긴 낮 12시20분 끝났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인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손경식 한국경제자유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최태원 회장은 “취임 초기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먼저 경제계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주시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업인들에 보여주시는 관심에 경제계도 상당히 기대가 크다”고 감사를 표했다.

최 회장은 “현재 국내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며 “안으로는 내수 부진과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고, 밖으로는 미중 패권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리스크가 계속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불안한 시간이 계속 흘러서 불안정한 형태”라며 “기업인들이 사업을 결정하거나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11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각국 주요 기업도 활발히 참여하려고 한다”며 “1700개 해외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민관이 원보이스로 협력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회장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회장은 “취임 직후 바쁜 일정이 많으실텐데 재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표방하신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국정철학은 우리 삼성뿐 아니라 여기 참석 중인 기업,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에는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이행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재명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발언을 경청 후 박수치고 있다. /뉴스1

해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장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 30년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투자를 늘려가고 있으며, 전통산업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고임금 일자리를 더욱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 되시고 나서 대통령 자서전을 읽었다”며 “삼성은 국내 청소년, 청년에게 꿈을 주고 사회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 취임 후 9일 만에 처음으로 주요 경제인들을 만난 자리로, 과거 민주당계 대통령들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다.

이 대통령은 “치안이나 안보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외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바로 경제인데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 각 기업들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우리 기업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표현으로는 규제 철폐 또는 완화일 것이고, 규제 합리화 문제에 주력하려고 한다”며 “행정 편의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 인도네시아 투자전방산업부를 방문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왼쪽부터 김경완 투자유치본부장, 구충곤 광양경제자유청장, 누를 이흐완 차관, 짜요 푸르노모 국장. /뉴스1

광양경제자유청장, 인도네시아 투자전방산업부 차관 면담

이차전지, 기능성화학, 에너지분야의 투자와 산업협력 논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광양경제자유청장, 이하 광양경제자유청)은 6월 12일 인도네시아 투자전방산업부(Ministry of Investment and Downstream Industries) 누를 이흐완(Nurul Ichwan) 차관과 양 지역 간 투자와 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면담에서 쌍방은 투자와 산업협력에서 더욱 구체화 되고 진일보한 의제를 논의하였다.

구충곤 광양경제자유청장은 “광양만권은 이차전지, 기능성 화학, 에너지 분야에서 산업 발전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천연 자원과 젊은 노동력을 잘 활용하여 투자와 산업협력에서 상생발전하자”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광양경제자유

과 인도네시아 바탕(Batang), 그레식(Gresik) 등 특별경제구역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 하였다.

이에 누를 이흐완(Nurul Ichwan) 차관은 “인도네시아와 광양경제자유청 간 투자정보 교류, 잠재투자기업 상호 소개, 투자실현과 정부간 산업협력, 행정적 지원 등 투자기업 사후관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자”고 전했다.

차관 면담 이후, 재인도네시아 한국상공회의소와 가진 간담회에서 구충곤 광양경제자유청장과 이강현 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인도네시아와 지속적 교류협력, 국내 복귀 기업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제도 개선에 공동 노력하자”라고 의견을 교류하였다.

광양/신선호 기자

해상풍력 중심 전남도의 산업 육성 비전 국내외에 알린다

18~19일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서 ‘해상풍력산업박람회’

전라남도도는 대한민국 해상풍력의 중심지로, 오는 18~19일 여수 엑스포홀에서 해상풍력 산업박람회를 열어 해상풍력산업 육성 비전을 국내외에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상풍력 산업박람회는 ‘세계 해상풍력 허브로의 당대 도전’을 주제로 지자체 최초로 전남도가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 제시, 연관 기업과의 협약 등을 야심차게 준비했다.

행사에는 대한민국 해상풍력을 이끌어온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발전사, 기자재 사, 전남 시군 등 1천여 명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1일차는 ▲기자재 공급망 구축·에너지 기본소득·해상풍력 산업 교육센터 설립·운영 업무 협약 ▲전남도 동부권 해상풍력 13GW 보급 확대 비전 및 지역 공급망

우대방안 ▲발전사 프로젝트 현황과 공급망 참여 방안 등을 발표한다.

2일차는 ▲여수, 고흥 중심으로 공공주도 단지개발 계획 발표 ▲양일간 전남 소재 기자재업체 홍보 및 납품 계약 매칭 상담을 추진한다.

전남지역 미래먹거리가 될 해상풍력 산업은 지난 2~3년간 글로벌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올해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이어 3.2GW 전남 신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패거리를 이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후 화석연료 화귀 움직임이 보였으나 국제사회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 기화로 삼고 있다”며 “지난 4월 신인 집적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산업 메카로 도약하도록 힘써야 하고, 그



전라남도도가 오는 18~19일 여수엑스포홀에서 해상풍력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지난 4월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해상풍력집적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 모습 /신영길 기자

중심에 여수, 고흥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번 박람회가 발전사와 기자재사가 네트워킹할 최적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연관 산업 육성과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 견인을 하기 위해 지속해서 힘을 기울인다.

/신영길 기자

전남 마른멸치, 호주 식탁에 오른다

여수 오성수산물, 국제 식품인증 기반 20톤 첫 수출

전남산 멸치가 호주 수출길에 올라 글로벌시장 공략이 본격화됐다.

전라남도도는 13일 여수 돌산읍의 오성수산물 공장에서 마른 멸치 20톤을 선적했다고 밝혔다. 수출 물량은 다시멸치, 볶음멸치, 지리멸치 등 3종이다. 150g 단위 소포장 형태로 가공됐다. 제품은 호주에 있는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과 한인 마켓 등을 통해 현지 소비자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수출을 주도한 오성수산은 여수 돌산읍에 본사를 둔 수산물 전문 제조기업이다. 멸치 어획부터 건조, 가공, 포장, 출고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 시스템으로 체계화해 관리하고 있다.

오성수산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그동안 수산물이력제와 식약처 HACCP, 해양수산부 품질인증, 전남도지사 품질인증, 여수시 해누리 인증 등을 획득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JAKIM)과 국제 식품안전 인증인 SQF-2000(3단계)을 취득

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그린리스트(식품안전성) 등록 및 호주 생물보안국과 농림부의 수입허가를 받았다.

전남 농수산식품의 2024년 호주 수출액은 1천114만 달러로 전년보다 12.4% 늘었다. 올 들어선 4월 현재까지 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성수 오성수산물 대표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며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멸치가 미국, 일본, 호주를 넘어 유럽연합(EU)까지 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지역 수산업체의 해외 진출은 전남 수산식품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전남 수산식품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자연속의 가족매를 곡성